

미술계를 움직이는 사람
'김달진 미술연구소' 김달진 소장



“발로 뛰며 수집한 미술 자료는 우리 연구소의 가장 큰 재산”

매주 금요일 오후가 되면 커다란 가방을 메고 서울 인사동과 사간동 화랑가를 훑고 다니는 사람이 있다. 미술에 관한 기록이라면 신문기사 한 줄이라도 놓치지 않을 정도로 한국 미술계의 자료는 몽땅 수집하는 사람.

미술 자료 전문가이자, ‘김달진 미술연구소’의 김달진 소장(47세)이 바로 그다.

그를 빼 놓고는 한국 미술계를 이야기 할 수 없을 정도로 그는 미술계의 독보적인 존재다.

작년에 우리 나라에서 미술 전시회가 몇 번이나 열렸고, 화랑은 몇 개나 생겼을까?

이런 물음에 대해 대답을 해 줄 수 있는 단체나 기관은 거의 없다. 그러나 한 개인이 미술계의 어제오늘 일을 훤히 꿰뚫고 있다면? 미술계의 독보적인 존재라고 할 수 있는 미술자료 연구가 김달진소장은 ‘걸어다니는 미술 사전’이라고 할 만큼 미술계에서는 그의 이름을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유명 인사다.

그는 지난 해 12월, 자신의 이름을 딴 ‘김달진 미술연구소’를 설립했다. 서울 평창동 가나아트센터 내에 위치한 이 미술연구소는 미술계에 입문한 70년대 이후, 그간의 경험과 지식을 농축한 김소장의 결실이라고 할 수 있다.

“우리 사회 전반이 자료의 소중함을 너무 모르고 흘려버리는 경우가 많 습니다. 미술계도 예외는 아니죠. 자료에 대한 몰이해와 부정확함 때문에 소중한 자료들을 그냥 흘려버린다면 미술계 발전에도 걸림돌이 됩니다. 올해 미술연구소를 세운 것도 한국의 미술계 자료는 우리 연구소가 책임진다는 각오로 더욱 분발하기 위해서입니다.”

김소장은 70년대 초반부터 한국 현대미술자료를 모으기 시작했다. 이때부터 시작된 미술자료 수집, 정리는 국립현대미술관 자료실에서 16년, 가나아트센터 자료실에서 6년을 보내면서 그의 경험과 함께 차곡차곡 쌓아왔다. 당시에 국내에 내노라 하는 화가와 미술계 인사들이 궁금한 것이 있을 때, 그를 찾는 일이 부지기수였다.

그는 올해 미술연구소를 세우고 그 첫 작품으로 ‘서울아트가이드’를 발행하였다. 아직까지 화랑가에 변변한 정보지가 없는 상태에서 나온 ‘서

울아트가이드’는 월간 전시 안내지로서 서울을 중심으로 한 화랑가와 전국 168개의 전시장에 그 달의 전시 소식과 각종 미술계 정보, 미술계 자료 등을 싣고 있다.

화랑가의 알짜소식지 ‘서울아트가이드’ 창간

“미술계의 인프라를 구축하는 작업의 일환으로 올 1월에 첫 선을 보인 월간 ‘서울아트가이드’는 전시장을 찾는 손님들과 미술계에 종사하는 사람들에게도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지면에는 전시 안내뿐 아니라 미술계의 대소사와 각종 미술 관련 정보, 미술사 속의 오늘을 돌아보는 이야기 등 생생하고 재미있는 코너도 만들어 알짜배기 미술 정보지로 자리 매김하고자 합니다.”

매월 3만부가 발행되는 ‘서울아트가이드’는 월 제작비가 4백 만원을 웃돈다. 무료로 배포되는 이 안내지는 어떤 단체나 기관의 도움 없이 연구소의 순수 자비로 나가기 때문에 재정이 어려운 형편이다. 그래서 제작비 보탬의 일환으로 현재 무료로 등재돼 있는 화랑에 연 회비를 받고 매월 화랑의 전시 소식을 게재하고자 한다. 미술계의 유익한 정보를 공유하는 월간 책자에 미술계의 관심과 후원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하겠다.

올해는 한일 월드컵이 열리고 이에 맞춰 문화 예술계 행사도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달진소장에게도 올해는 더욱 바쁘게 뛰는 한 해가 될 것 같다.

“처음에는 그림을 감상하는 취미생활에서 이 계통의 직업을 가지게 되었고 이제는 사회에서 조금이나마 인정받으며 천직이라고 생각하니 보람을 느낍니다. 한국 현대 미술사에 긍지를 가지면서 계속 이 길을 성실히 걸어 나갈 것입니다.”

미술이라는 한 우물을 판 사람, 한 길만을 꾸준히 달려온 김소장에게는 나이를 짐작하기 어려운 젊은 열정이 솟아난다. 곧 찾아올 새 봄처럼 희망찬 기운이 ‘김달진 미술연구소’에 가득하다. 오늘도 연구소를 나서 또 어디론가 분주히 가는 김소장의 뒷 모습에서, 올 한 해 말처럼 부지런히 땀 그의 활약상이 기대된다.

에디터허주희 사진최준수